

Ⅲ. 지역경제일지 (2024.5.1~ 5.31일)

▷ 5.2일 : 인천시, 영종도 마지막 미개발지에 바이오 특화단지 설립을 구상

- 최근 인천시는 영종도의 마지막 미개발지인 제3유보지(전체 363만㎡)를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
- 인천시는 영종, 송도, 남동산단을 묶어 '바이오 트라이앵글 첨단특화단지' 육성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
 - 영종도는 바이오 산업용 부지 확장과 바이오 제품의 수출입에 필요한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, 송도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·생산·인력 양성을, 남동산단은 바이오 원·부자재와 소부장 산업을 담당하도록 육성한다는 계획

▷ 5.8일 : 인천, APEC 정상회의 후보도시로 선정

- 외교부는 2025 APEC 개최도시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최종후보 3개 지자체로 인천시, 제주시, 경주시를 선정
 - 인천시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
- APEC 정상회의 개최 시 인천지역 마이스(MICE)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
 - 인천연구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생산유발효과를 1조 5천억 원, 취업유발효과를 2만여 명으로 추산한 바 있음

▷ 5.8일 :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

- 인천 서구의 SK E&S 액화수소 플랜트가 준공되어 연간 3만 톤의 액화수소 생산을 시작
 -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, 부피가 줄어들어 기체수소 대비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음

- 액화수소 3만 톤은 수소버스 약 5천 대를 1년간 운행할 수 있는 규모로, 세계 최대 연 생산 규모임
-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의 가동은 액화수소 운송, 수소 모빌리티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 - CJ대한통운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사업에 진출하고, HD현대가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소 관련 시장 진출과 산업의 성장 등이 기대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에 따르면, 2030년 세계 수요시장 수요는 약 1억 5천만 톤에 달할 전망으로 2022년 수요 대비 63%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▷ 5.20일 : 인천 '1억 + i드림' 사업, 시의회 조례 통과

- 인천 1억 + i드림 사업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시행이 임박
 - 인천 1억 + i드림 사업은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복지정책으로, 기존 7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총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
 - 증액되는 지원은 1~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(1,040만원 규모)과 8~18세 아동에게 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(i) 꿈 수당(1,980만원 규모) 등으로 구성
- 1억 + i드림 사업 중 천사지원금은 내달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
 - 아이 꿈 수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중인 상태로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